

세대교체 vs 경험의 힘...전 현직 구청장·시의원 출마 행렬

광주 동구청장

임택, 구정 안정·행정 혁신 평가 '3선 도전' 흥기월 등 다선 시의원들 의정 경험 내세워 노희용·김성환 등 전직 강점 내세우며 어필

호남 정치의 심장이라 불리는 광주시 동구가 다시 한 번 주목 받고 있다.

'호남 정치 1번지'라는 상징성 아래 3선에 도전하는 현 구청장과, 전직 구청장·다수 시의원들이 출마 행렬에 합류하면서 사실상 '세대교체'와 '경험의 힘'이 맞붙는 양상이다.

먼저 풀뿌리 지방자치 경험에 풍부한 임택(62) 현 청장은 구의원들과 시의원을 거쳐 민선 7·8기 동구청장직을 수행하며 구정의 안정과 행정 혁신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문도시' 브랜드화, 충장로 상권 회복, 고향사랑기부제 정착 등을 성과로 내세우며 '성과의 연장' 명분을 강화하고 있고, 3선 과제로는 재정 집행 효율화와 청년 주거·보육 지표 개선을 제시하고 있다.

재임 중 도시재생사업과 인구 증가, 전국 최고 수준의 공약 이행 등 눈에 띄는 성과로 구민에게 신뢰를 쌓았다는 평가다. 하지만, 3선 도전이라는 '벽'이 민심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미지수로 꼽힌다.

흥기월(65) 광주시의원은 4선의 구의원 등 5선 지방의원의 경력을 바탕으로 의정 경험을 내세우고 있다. 주민 숙원사업과 생활밀착형 정책에 집중하며, 지역 곳곳을 직접 누비는 현장 정치인으로 지역민에게 인정을 받고 있다는 평가다. 확실한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내년 선거를 앞두고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박미정(여·57) 광주시의원은 사회복지사 출신의 재선 의원으로, 복지·안전분야 전문기를 자임하고 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 제도의 설계와 공공 돌봄 정책 실현에 노력해 왔으며, 시민 삶의 질 개선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임택



김성환



노희용



박미정



진선기



흥기월

특히 공공복지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킨 선도적 역할이 큼직하게 평가된다.

진선기(61) 전 시의원은 북구에서 두 차례 시의원에 당선됐고, 최근에 지역구를 동구로 옮겨 동구청장 도전을 준비 중이다. 대선 후보 경제특보단장 등 다양한 이력을 쌓아왔다.

전직 구청장들의 도전도 거셀 전망이다. 전 동구청장을 지낸 노희용(63) 광주문화재단 대표는 공직 경험과 예술·문화 정책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다. 지방고시 출신인 노 대표는 2012년 동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오랜 기간 동구에 머물면서 지역 중견 인사로 자리잡았다. 지난 17일 사직서를 제출하며 본격적인 출마 행보에 나섰다.

김성환(63) 전 동구청장은 행정고시 출신의 정통 관료로, 국무총리실과 청와대 등 중앙부처 이력을 내세우고 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동구청을 이끌었으며, 구정 변화의 물꼬를 튼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현재는 무소속 출마와 조국혁신당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내 조직력을 탄탄히 갖춘 임택 청장의 3선 도전에 맞선 전직 구청장들의 조직력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현직 구청장들의 대결도 관심사로 꼽힌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서구청장

7명 각축...본선보다 뜨거운 민주 경선 현 청장 김이강-전직 서대석 리턴매치 새 인물들 참신함 무기...조직력 싸움

지방선거가 약 8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광주 서구청장 선거 열기가 서서히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 강세 구도 속에 '공천=당선' 인식이 뚜렷해지며 당내 경선이 사실상 본선을 가를 최대 분기점으로 전망된다.

현직 구청장과 전직 구청장의 리턴매치, 전·현직 시의원들과 행정가 등 7명의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인물들이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지거나 출마 준비에 나서며 내년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본선 못지않은 치열한 경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김이강(54) 서구청장은 젊은 구청장이라는 브랜드를 앞세워 '착한 도시' 브랜드와 골목형상점가 지정, 권역별 맞춤형 정책 등 주요 구정 성과를 앞세워 재선 도전에 나선다.

특히 재임 기간 주민 중심 민원 시스템 도입, '서구아너스' 운영 등 복지 혁신사례 등은 우수 정책으로 꼽히고 있다. 김 청장은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대외협력관, 광주시 대변인 등 다양한 행정 이력을 배경으로 높은 인지도와 조직력을 과시하고 있다.

서대석(64) 전 서구청장은 2018년 무소속 출마 이후 민주당에 복당하면서 재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 탈당 후 무소속 출마가 약점으로 꼽히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 내 조직력은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민선 7기 서구청장 시절 '서구형 복지공동체'와 통합돌봄 모델, 복지 인프라 확충 성과 등을 자신의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명진(여·58)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은 오월어머니집 초대 관장, 노무현재단 광주지역외 운영위원 등 시민사회 활동과 복지·교육·골목경제 세밀 정책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광주 최초 여성 단체장' 도전을 공식화했다.

김영남(58) 민주당 광주시장 상임부위원장은 6·7대 광주시



김이강



강수훈



김영남



명진



서대석



조승환



황현택

의원을 거치며 고교 무상급식 확대, 대형마트 불법 재입대 해소 등 현안 해결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최근 대선에서 지역 공동선거책임위원장과 총괄특보단장으로 활약하며 행정 경험과 생활 체감형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

강수훈(41) 시의원은 전남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시장 정책실장을 역임했으며, '젊은 민주당'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인물로 꼽힌다.

청년참여 확대와 창업지원, 미래산업 일자리 조성 등 젊은 감각의 행정 비전을 강조하며 세대교체 바람을 예고하고 있다.

조승환(65) 전 서구청 총무국장은 33년간 서구청에서 근무하면서 총무·복지·경제·의회사무국장 등 다양한 부서를 거친 정통 행정가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서구의원 출마, 노인일자리 확대, 풍암호 수질 개선, 1인가구·어르신 돌봄 강화 등 생활밀착형 공약 수행 경험을 기반으로 구정 혁신을 강조한다.

황현택(65)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원장은 전 시의원과 서구의회 의장 경력을 앞세워 교통약자·장애인·소상공인 지원 및 가변주차제, 교육청 유류공간 활용 등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바닥 조직력을 토대로 표발을 다지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

전현희 “필요시 캄보디아에 군사조치·ODA 중단을”

국힘에尹 정부 시기 ODA 급증 해명 촉구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수석 최고위원이 19일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한국인 납치·살해 사태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군사적 조치도 배제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전쟁을 하자는 게 아니라 외교·군사·정보 등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 생명을 지켜야 한다”며 국제사회 공조와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캄보디아 사태를 “역사의 치욕”으로 규정하고, 비협조가 이어질 경우 ODA(공적개발원조) 중단 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 시기 ODA 급증을 비판하며 국민의힘에 해명과 사과를 촉구했다.

현직서 귀국한 김병주 최고위원은 군사 옵션엔 선을 그으며 “한·캄 공조로 조기 해소 가능” 전망을 내놴. 김병기 원내대표도 “군사 대응은 극히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與 “장동혁 ‘尹면회’는 내란 미화·극우 선동”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사실상 불법 계엄과 탄핵 부정의 대국민 선포이자 극우 선동”이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민주당은 장 대표가 ‘기도’와 ‘투쟁’을 언급한 데 대해 “내란의 주범을 미화하며 헌정질서를 유린한 정권의 망령을 소환했다”고 비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투쟁이 아니라 내

란 사태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책임”이라며 “국민의힘은 ‘좌파 타도’ 프레임에 갇혀 본질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대표가 윤 전 대통령의 길을 따르려는가.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세력의 복귀를 국민과 역사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비판에 가세했다. 정청래 대표는 “단단히 무장 윤운은 또 계엄이냐”고 했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강을 건너 돌아올 배를 불태웠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연합뉴스

국감 브리핑

조인철 “지역 언론, 수도권 위주 생태계 속 네이버 입점 소외”

“네이버 입점 평가·제휴 과정에서 반영돼야”

국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지역 언론사의 네이버 입점 소외가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광주 서구갑) 의원은 최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최성준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 정책위원장(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지역뉴스가 네이버 입점 평가와 제휴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네이버는 지난 6월 기준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뉴스제휴위원회로 바꾸고 올해 안에 언론사 입점 평가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

도 언론사 제휴 심사 기준을 만드는 제휴위 산하 정책위원회에 ‘다양성 태스크포스(TF)’를 두기로 했다. 이로써 지역과 노동·장애·성 평등(젠더) 등 다양성을 고려한 기준이 입점 평가에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최 위원장에게 “서울 중심 뉴스 생태계 속 지역뉴스 소외도 균형 있게 정보를 접해야 한다”며 “다양성 TF에 지역을 대표할 인사가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위원회 구성 때 지역 인사를 반드시 포함해 지역 불균형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네이버는 가가와와 함께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해마다 별도 심사를 통해 입점 언론을 선정해 왔지만, 심사 과정에서 기사 생산량, 보도의 공정성·정확성·객관성, 윤리적 실천 의지 등을 정량·정성평가 할 뿐, 지역 전문성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아 이른바 중앙 언론에만 제휴가 집중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사람의 보험비지
전 국민의 경제부담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는 범죄입니다

24년 8월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 시
최고 징역 10년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알바 댄는데 해볼래?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신고하세요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알선이란? | 보험사기행위를 실행하려는 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유인이란? |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보험사기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경찰청
SEoul NATIONAL POLICE AGENCY

금융감독원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생명보험협회
Korea Life Insurance Association

화재보험협회
Korea Fire Insurance Association

IGFA 보험GA협회
IGFA Insurance Association of Korea